

2. 선교사 멤버케어란 무엇인가? What is Missionary Member Care?

간단 요약 Short & Simple Summary

선교사 멤버케어는 신약의 바울 당시부터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1980년대부터 주로 진전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선교사 멤버케어라는 용어가 1980년대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1990년대에 '선교사케어'와 '멤버케어'라는 두 용어가 거의 비슷한 말로 등장했다. 21세기에 들어서야 대부분의 정의에 선교사들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하도록 사역을 준비시키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개념이 포함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다.

선교사케어 (1992) *Missionary Care* (1992)

선교사 멤버케어 (2002) *Doing Member Care Well* (2002)

글로벌 멤버케어 네트워크 (2012) Global Member Care Network (2012)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What did Jesus do?

더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자료로의 링크를 원한다면, 계속 읽기를 권합니다.

선교사 멤버케어에서 다루는 일을 설명하는데 많은 단어가 사용될 수 있다. 우정, 격려, 지지, 도움, 교제, 나눔, 소통, 방문, 지도, 위로, 상담, 사역 보고 등이 그런 단어다. 이 모든 단어와 이보다 더 많은 단어가 선교사의 특별 필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멤버케어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16장에서 약속한 성령의 케어를 받는다. 번역하면 '위로자,' '보혜사,' '중보자'인 성령은 헬라어(paraclete 파라클레트)로는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도록 부르심을 받거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 곁에 서계시도록 초청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그들이 선교사이든 다른 직업에 종사하든-그들 곁에 가서 돕도록 하신다. 본국에 사는 사람들은 목사, 상담가, 친구, 성경공부 소그룹 모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선교사 중에는 선교 단체나 교회에 소속되어서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곁에 와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 사용되는 용어가 '멤버케어'다.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시느냐?"며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상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선교사에게 외상 후 하루 이틀 내로 정신적 외상에 대한 상담을 위해 달려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막기 위해 돕는 것과 같은 아주 드문 경우도 있다.

20세기 후반 선교사 멤버케어는 종종 '선교사케어'라고 불렸다. 정의는 말 그대로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고, 한 두 문장이 추가되었다. 1988년 켈리와 미셸 오도넬은

자신들의 첫 전공 책에 「선교사들의 성장 돕기: 정신적 건강과 선교에 관해서」라는 제목을 붙였다. ‘선교사케어’나 ‘멤버케어’라는 용어는 책의 어느 부분, 어느 난, 어느 목차의 제목에도 나오지 않았다. 책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선교사케어 *Missionary Care* (1992)

4 년 후 켈리 오도넬은 1992 년 자신의 책 제목을 「선교사케어」라 하고, 「세계복음화의 비용에 관해」라는 부제를 달았다. 서론에서 선교사케어가 이미 등장했으며, 그것은 ‘선교 인력의 케어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계속해서 오도넬은 “이 분야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한 *멤버케어* 라는 용어는 선교 단체, 파송 교회, 기타 다른 선교 관련 단체가 선교 인력의 개발을 위해 자원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선교사케어와 비슷하고 두 가지 용어를 이번 책에서 번갈아 가며 사용하기로 했다”(1-2)고 했다. 뒤이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담긴 긴 문단을 덧붙였다. 두 용어는 이 책에서 거의 균등하게 나타난다.

- 1 부 제목은 “선교사케어 개관”
- 4 부 제목은 “선교단체와 멤버케어”
- 1 장 “선교에 있어서 멤버케어에 대한 관점”
- 2 장 “선교사케어에 대한 역사적 기록”
- 1 부 서론에서 선교사케어를 “세계 복음화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격려하는 수단”으로 정의했다.
- 위에서 언급했던 1 장 처음에 켈리와 미셸 오도넬은 멤버케어를 “선교 인력의 성장을 위해 선교 단체, 파송 교회, 관련 선교 기관의 자원과 잠재적 자원의 지속적 헌신”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두 단락 분량의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책 전체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the-cost-book->

「선교사 멤버케어」 *Doing Member Care Well* (2002)

10 년 뒤 켈리 오도넬은 자신의 책 제목을 「선교사 멤버케어」로, 부제를 「전세계적인 관점과 관행」(2002, 윌리엄 캐리 라이브러리)으로 하였다. 책의 각 부, 각 난, 각 장의 제목에서 ‘멤버케어’는 13 회 나오고, ‘선교사케어’는 한 번 나온다. 색인에서 ‘멤버케어’와 ‘선교사와 멤버케어’는 31 부분으로 더 작게 나뉘고, ‘선교사케어’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오도넬은 멤버케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멤버케어는 선교 단체와 교회, 기타 선교 기관의 선교 인력의 양성과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자원 투자이다. 선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선교사, 보조 직원, 자녀,

가족)에게, 선교사 모집에서부터 은퇴까지 선교사 삶의 모든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오도넬은 계속해서 서론에서 정의를 설명하고 예를 든다. 그리고 1장에서 ‘우수 사례를 통한 멤버케어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에서 멤버케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 마스터 케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돌보신다
- 셀프/상호 케어: 선교사들끼리 스스로, 서로 돌본다.
- 파송자 케어: 교회와 개인이 자신이 후원하는 선교사를 돌본다.
- 전문가 케어: 목회자, 심리학자, 의료진, 상담가, 재무 조언자 등이 선교사를 돌본다
- 네트워크 케어: 단체 간 멤버케어 제휴

이 책의 1부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doing-member-care-well>

글로벌 멤버케어 네트워크 Global Member Care Network (2012)

10년 뒤 글로벌 멤버케어 네트워크는 멤버케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멤버케어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 사역, 일을 위해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단련시키며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멤버케어는 선교사와 그들의 부양 가족의 안위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영적, 감정적, 관계적, 신체적, 경제적 문제를 포함한다. 멤버케어는 독신, 커플, 가정, 자녀의 필요를 포함한다. 또한 선교사들에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훈련과 자원 제공, 준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교사들이 건강한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리더십, 진행 절차, 영성 형성, 교회 생활 등을 포함한 선교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선발부터 시작해서 선교사의 재입국 또는 은퇴와 그 이후의 생활주기까지도 연결된다.

멤버케어의 책임은 파송 기관, 파송 교회, 현지 교회, (본국/현지)리더십, 팀, 가족, 개인 후원자들, 역량 있는 멤버케어 제공자들, 각 선교사 개인에게 있다. 멤버케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지속적 배움과 네트워킹, 자원 발굴을 통해서 모든 관련 영역에 있어서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기대어 자기 자신의 약함을 깨달으며 겸손과 진실함, 긍휼로 선교사 공동체를 섬길 것이다.

<http://www.globalmembercare.com/index.php?id=34>

글로벌 멤버케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멤버케어는 선교 단체, 현지 리더십, 파송 교회들이 일꾼들을 돌보고 후원하기 위해 타당한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삶, 사역, 일을 위해 계속적 준비, 단련,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그것이다.

확실한 것은 일반적인 선교사 멤버케어의 정의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정의에 따르면 너무 광범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어떤 정의에 따르면 너무 제한적이어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을 빠뜨리기도 한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교하도록 보내고,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과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선교사 멤버케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와 많은 부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선택/선발). 첫 네 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선택 받았다(마 4:18-22).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부름을 받았다.
- 예수님은 12 명을 사도라 칭하시며, ‘세우셨거나,’ ‘선택하셨다’ (막 3:13-19, 눅 6:13-16).
- 예수님은 선택된 12 명이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후에 ‘보내시려 했다...’(막 3:13-19).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몇 달 동안 말로, 본을 보이시며 가르치셨다.
- 예수님은 이 12 명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든 자를 고칠 권세를 주셨다(마 10:1, 막 6:7, 눅 9:1).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갈지, 무엇을 가지고 가고, 무엇을 가져가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숙소를 얻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격려하셨다(마 10:5-42, 막 6:8-11, 눅 9:1-5). (예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그들의 ‘본국’으로만 보내셨음에 유의할 것.)
- 그는 12 명을 보내셨다(마 10:5, 막 6:7, 눅 9:2).
-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를 들으셨다(막 6:30, 눅 9:10).
- 12 명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쉬셨다(막 6:31-32, 눅 9:10).
- 몇 년간의 멘토링 후, 예수님은 부활 후 남은 11 명에게 나타나셨고, 가서 모든 족속(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마 28:16-20).
- 결국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나셨고, 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셨다(행 1:6-9).

선교사 멤버케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없음이 확실하다. 대부분의 정의는 선교사들이 성장하여 효과적인 선교를 하고 그러한 선교를 장기간 동안 지속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한다. 아마도 좋은 정의는 바울이 자신에게 멤버케어를 제공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했던 이야기 “그들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고전 16:17-18, 빌 2:25).

독자에게: 이번 장의 질문에 대한 더 좋은 답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on@missionarycare.com. 이 메일에는 세 가지를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2) 관련 웹사이트 주소, (3) “선교사 멤버케어란 무엇인가”에 더 좋은 답을 낼 방법. 제안해주신 것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책을 업데이트하고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